

무치악 환자에서 가이드 수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수복

김 기 성 / 남상치과

완전 무치악 환자를 보철 수복하는 기존의 방법은 총의치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도움없이 연조직에서 유지, 안정, 지지를 모두 얻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에게 해결하기 힘든 큰 숙제였습니다.

1952년 브레네막 교수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골유착 개념이 임상에 적용되면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무치악 환자의 보철 수복법은 다양해졌고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 수술을 이용한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철수복은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으며,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이드 수술이란 구강 내 표면 데이터와 치과용 CT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합이라는 과정으로 중첩하고 정확한 수술계획을 세워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로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가이드를 사용하여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는 치아가 없는 경우이므로 가이드 수술 준비 단계 중 정합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며 Top-down 방식으로 workflow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상치아 배열과정 또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철방식을 가이드 수술을 통해 해결한 임상 증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를 고정성 보철방식으로 해결한 증례를 통해 정합 과정, 가상치아 배열 과정을 포함한 가이드 수술 준비 과정과 수술, 보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졸업(치의학박사)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수련
- *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장 역임
- * 서울임플란트 임상연구회 회장 역임
- * 현, 남상치과 대표원장